

주요사업 안내

부산국제수산물EXPO 주관
리스크 안전망 구축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스페셜 코너

제철 수산물 레시피 : 갈치, 새우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입 발전에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 3분기 Vol.36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통권 제36호

발행처 한국수산무역협회 발행인 배기일 주소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aT센터) 1103호

TEL 02) 6300-8901 FAX 02) 6300-8900 이메일 kfta@kfta.net 홈페이지 www.kfta.net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CONTENTS

한국수산물역협회 현황

세계 속 협회	04
전국 수산 유관 단체 간담회 참가	07
수산물 상생할인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07
신규 임직원 소개	08

한국수산물역협회 회원사 현황

신규회원사 소개	09
우수회원사 소개	10

한국수산물역협회 주요사업 안내

부산국제수산물EXPO 주관	12
수산물 수출 유공 및 브랜드대전	13
한국산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	14
K-Seafood Fair	15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16
리스크 안전망 구축	18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20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20
수산물 TRQ 수입권구매·배분	21
할당관세 적용 추천(새끼뱀장어)	21

알아두면 좋은 수산물 수출입 Tip

튀르키예, EU TRACES 등록 기업의 수산물 수출 허용	22
----------------------------------	----

통계자료

국가별·품목별 수출 통계	24
국가별·품목별 수입 통계	25

국내외 수산 뉴스 26

스페셜 코너

제철 수산물 레시피	28
속담 속 바다 이야기	30
독자투고	32

협회 연락망 35

세계 속 협회

한국수산물무역협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박람회에 참관하여 국내 수산식품 업체들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우리 협회는 김산업진흥구역 전문기관으로서, 금년도 장흥군, 진도군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색깔에 맞춘 김을 홍보해오고 있다.

2025 호치민 식품 박람회(VIET FOOD) 참가

협회는 장흥군과 함께 지난 바르셀로나(5월) SEAFOOD EXPO GLOBAL 방문에 이어, 8.7.(목)~9.(토)에 베트남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호치민 식품 박람회(VIET FOOD)」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 중 김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통하여 베트남 진출 관련 정보를 습득하였고, 현지 시장 상황과 니즈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협회는 장흥군과 베트남 수산물



VASEP 업무협약식

생산자 및 수출협회(VASEP)와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과의 업무협약(MOU)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장흥군 지역 수출업체들이 거점 진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십도 맺게 되었다.

박람회 참관을 통하여 유럽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베트남(동남아) 지역에는 친환경에 대한 니즈보다 가격경쟁에 유리한 김 제품을 찾는 수요가 더 높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 품목 중 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협회와 장흥군은 국내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김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소개하며 시장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김 마케팅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김바이어 초청상담회



KOCHAM 업무협약식

2025 호치민 수산 전시회(VIET FISH) 및 싱가포르 Seafood Expo Asia 참가



VIET FISH 행사장 전경

협회는 8.19.(화)~21.(목)에 베트남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호치민 수산 전시회(VIET FISH)」와 9.10.(수)~12.(금) 싱가포르 샌즈엑스포컨벤션센터(Sands Expo &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씨푸드엑스포아시아(Seafood Expo Asia)」에 진도군, 국내수산물수출업체와 함께 참가하였다.

호치민 수산 전시회는 유럽과 많은 거래를 하는 수산국인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 유럽 바이어들이 참관하며, 베트남 수산 및 수산물 가공업체의 80%가 가입된 베트남 수산물 수출생산자 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이다. 따라서 베트남, 유럽 등 국제 수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전시회이기도 하다.

협회와 진도군은 김산업진흥구역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진도의 곱창김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해외마케팅용 영상을 제작하였다. 해당 영상은 김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진도의 곱창김의 우수성에 대해 알리는 내용으로 2개월 만에 65만 조회 수를 넘는 호응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치민 수산전시회의 참관객 시청용으로 4개국(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자막을 넣어 현장에서도 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호치민 수산전시회 참가업체인 동양영어조합법인은 첫 참가에서 현장에서 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업체 수출계약 성사 기념사진



수출상담회 및 MOU 진행 전경

호치민 수산전시회에서 국내 업체의 좋은 성과 후, 협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수산식품 전문 박람회인 싱가포르 씨푸드엑스포아시아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곱창김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반김에 비해 비교적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곱창김은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하는 만큼 동남아 시장에서의 호응이 우려되었으나, 시식행사를 통해 바이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곱창김의 활약이 기대된다.



씨푸드엑스포아시아 전시부스 전경



곱창김 시식 준비



곱창김 시식행사 전경

2025 도쿄 수산박람회(Japan International Seafood Show)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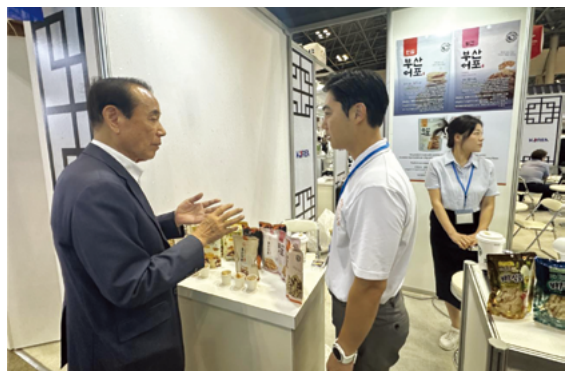
협회는 8.20.(수)~22.(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도쿄 수산박람회(Japan International Seafood Show)」에 참가,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대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우수 수산식품 홍보와 함께,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김(GIM)의 우수성 홍보와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부산국제수산EXPO'의 홍보를 진행하였다.

27회를 맞이한 올해의 도쿄 수산박람회에는 전 세계 750개사가 참가하고 약 3만 명이 참관하며 수산대국(水産大國) 일본의 저력과 세계 수산식품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박람회였다.

한편, 배기일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회장은 올해도 박람회 개최사인 대일본수산회의 초청으로 개막식과 만찬행사에 참석하였다. 특히, 20일 도쿄 모처에서 진행된 만찬행사에서는 대일본수산회 회장(에다모토 마사야키)은 물론, 일본의 수협중앙회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사카모토 마사노부)과 수협중앙회 경제부대표(이승룡) 등이 참석, 한·일 양국 수산업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쿄 수산박람회 전경



도쿄 수산박람회 순람 중 배기일 협회장과 회원사와의 만남

전국 수산 유관 단체 간담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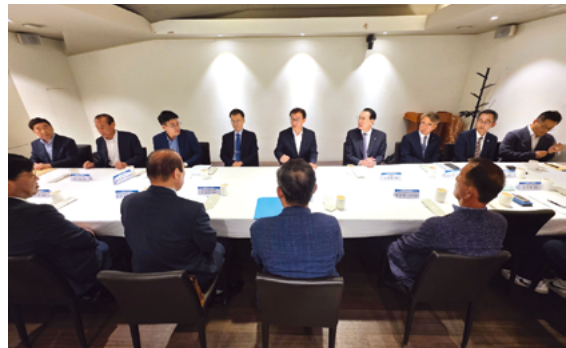
협회는 9.12.(금) 서울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의 「전국 수산 유관 단체 간담회」에 참가, 우리 수산업계가 마주한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수산물(주관), 수협중앙회 등 총 13개 단체장이 모여, 올해 초에 진행된 ‘신년 인사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간담회였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국의 수입 관세’를 발제, 정부에 △ 미국 수출업계에 관세 부담분 일부의 한시적 지원과, △ 미국 대표 수출 품목인 김에 대한 현지 마케팅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활약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전국 수산 유관 단체 간담회 전경



수산물 상생할인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우리 협회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 주최/한국수산물무역협회 주관)의 일환으로 지난 8.28.(목)에 ‘임산부 대상 건강한 출산응원 수산물 꾸러미’를 부산 7개 구·군 아가맘센터/모자보건소 및 부산시청에 제공하였으며, 9.11.(목)~14.(일) 4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코베 베이비페어 연계 다시팩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다시팩 만들기 체험 전경

‘임산부 대상 건강한 출산응원 수산물 꾸러미’와 ‘다시팩 만들기’의 상품과 재료는 모두 상생할인지원사업 신청업체 중 선정된 업체의 제품들로 이루어졌다. 꾸러미는 총 1,200세트가 제작되었으며 하트미역, 김, 다시마 식초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 코베 베이비페어 연계 다시팩 만들기 체험’은 국내산 건어물(멸치, 새우, 다시마)을 활용한 행사로 약 2,420명의 체험객(영유아, 부모 포함)이 참여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다시팩 만들기 정보 제공 및 수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신규 임직원 소개



수출지원 본부장 **황강석**

- 발령일 : 2025.8.5.
- 담당부서 : 수출지원부
- 담당업무 : 수출지원부 업무 총괄

반갑습니다.

8월부터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출지원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황강석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수산 관련 국가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서 약 28년간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퇴임 후 관련 대학에서 소소하게 후배들의 연구를 도와주는 생활을 하며 과거 대비 다소 열의가 식어가던 차에 한국수산물무역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다시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과거 해왔던 분야와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예전에 연구에 집중할 때와 같은 열정으로 우리 협회와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더욱 부흥해 나가는 데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회와 회원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지원 대리 **박소민**

- 발령일 : 2025.7.1.
- 담당부서 : 수출지원부
- 담당업무 : 리스크안전망 구축
국내공동물류센터 지원
수출부 업무 관련 서무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출지원부 대리 박소민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부로 한국수산물무역협회의 임직원이 된 후,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 및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산물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분야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미지의 영역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앞서 업무에 대해 길을 닦아오신 선배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협회 회원사를 필두로 수산업계, 관련 기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가 가고자 하는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 인사를 전해드림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분기 신규회원사 소개



회사명	대표자	TEL.	주소.	주요품목
		FAX.	e-mail	
(어)(주)희망김	한화진	061-833-8828 061-833-8828	전남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577 koao1226@hanmail.net	김



💡만내

최근 글로벌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우리 수산물 수출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산물무역협회에서는 회원사별 담당자를 지정, 매주 최대한 많은 회원사의 근황과 어려움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자사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와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회 회원사 현황(2025. 9.3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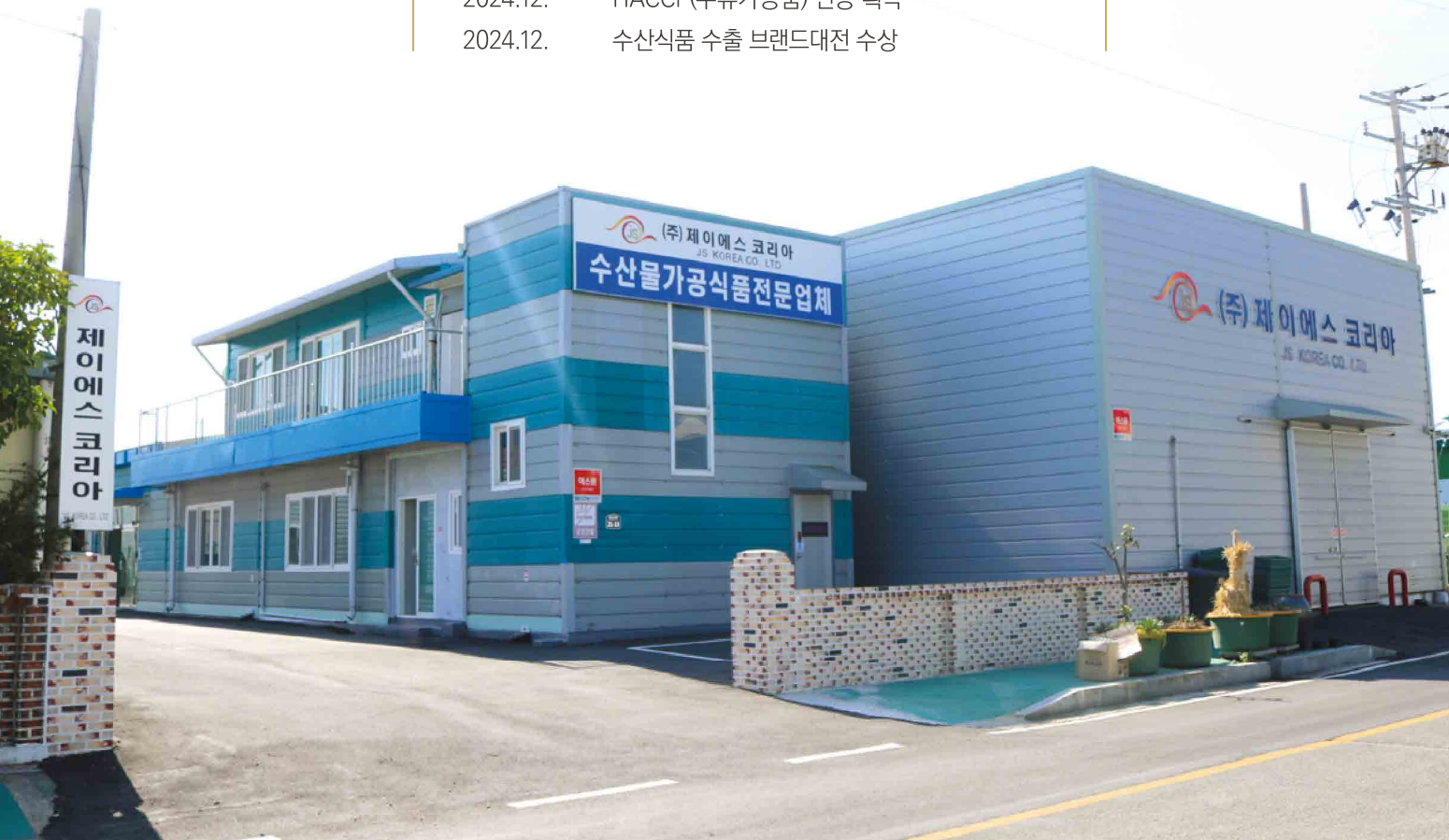
구분	현황 합계	김	전북	미역	수입	기타
가입 업체 수	333	126	19	9	39	140
비율(%)	100	38	6	2	12	42

우수회원사



JS KOREA CO., LTD.

- 2011.05.11. 개인사업자등록
- 2013.12.05. 제50회 무역의 날 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10.30. 미국 US FDA 제품등록(SID No.)
- 2017.03.09. ISO22000 인증 획득
- 2017.12.06. (주)제이에스코리아 법인 전환
- 2017.12.12.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공로탑 수상
- 2018.11.13. 미국 US FDA 공장 및 시설 등록
- 2019.02.19. HACCP(기타수산물가공품, 조림류) 인증 획득
- 2020.12. FSSC22000 인증 획득
- 2020.12. 제57회 무역의 날 3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2020.01.02.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 수상
- 2022.05. HACCP(레토르트식품(즉석조리식품)) 인증 획득
- 2021.01. JAKIM HALAL(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취득
- 2024.12. HACCP(두류가공품) 인증 획득
- 2024.12. 수산물식품 수출 브랜드대전 수상



(주)제이에스코리아는 임정석 대표이사의 탁월한 리더십과 수산·유통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온 전문 기업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최고 품질의 한국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온 바 있다.

청정한 한국 바다에서 자란 신선한 수산물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전복, 굴, 광어 등이 있으며, 단순 유통을 넘어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통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수산물 가공 기술과 끊임없는 식품 개발을 통해 진심 전복죽, 진심 전복만능볶음장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FSSC22000(식품안전시스템), HALAL(할랄 인증), USA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록 등 다수의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바이어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제이에스코리아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이에스코리아는 한국수산무역협회의 우수 회원사로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품질, 혁신, 그리고 고객 만족을 통해 한국 수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식재료로 자리매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 회원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서부터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산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 주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부산국제수산물EXPO 주관

우리 협회와 벡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부산국제수산물EXPO(비스페)가 11.5.(수)~7.(금)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국제수산물EXPO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관련 무역전시회로 자리 잡은 이 시점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소식이 보태지며 부산이 공식적인 수산물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광역시장이 이번 전시회에 대한 참가 의지를 밝힌 만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환영과 동시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금번 국제수산물EXPO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협회는 최선을 다하여 비스페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베트남은 자국 내의 내수시장 활성화로 우리나라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기회가 더욱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일본, 미국, 유럽국가의 한국 방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업체들의 비스페 참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수산물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올해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우수하게 부산국제수산물EXPO를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는 초청비용(항공, 숙박 등)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며 비스페 안에서 업계의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왜 BISFE 2025인가?

- 기후 변화, 해양 자원 고갈,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
- 해외 바이어, 글로벌 유통 전문가, 수산물 기술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실질적 수출 상담·계약의 장
- 첨단 수산물 가공·유통 기술, 스마트 양식, 친환경 포장 등 차세대 수산물 산업 트렌드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국제 세미나, 수산물 리스크 교육, B2B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 강화와 시장 확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



BISFE 전시장 전경



비즈니스 상담회 전경



수산물 수출 유공 및 브랜드대전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소비 위축과 높아지는 무역장벽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협회는 「수출 유공(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수출 공로탑」, 그리고 「수출 브랜드대전」의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동행사는 올해도 대면 시상식으로 개최될 계획이며, 상세일시 및 장소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수상업체를 중심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등 수상업체에게 자사 홍보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며, '20년 부활한 「수출 브랜드대전」의 상금 총 750만 원이 수상업체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유공 및 브랜드대전 - 수상자 단체사진

개최 계획

» 개요

일시/장소	수상업체 중심, 별도 안내 예정
구 성	장관표창 : 수출업체·지원기관·지자체의 수산물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한 자에게 장관표창 수여 공로탑 : 일정 직·간접 수출실적을 신규 달성한 업체에 수산물 수출 공로탑 수여 브랜드대전 : 우수 수산가공식품 브랜드 보유업체에 상패·상금 수여(대상 1, 금상 1, 은상 1, 동상 1)

» 신청

기간/방법

장관표창 : 10월 /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접수

공로탑 : 10월 / 온라인(biz.k-seafoodtrade.kr) 및 이메일 접수

구분

억불탑 ^{대형}	천만불탑 ^{중형}	백만불탑 ^{소형}
1·2·3억 불	1·2·3·5·7천만 불	1·3·5·7백만 불
3종	5종	4종

브랜드대전 : 공로탑과 동일(단, 비계량평가용 샘플은 협회에 별도 우편 제출)

구분

상 격	대상	금상	은상	동 상
훈 격	장관상			회장상
상 금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대상점수	1	1	1	1



한국산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

2016년 정부가 협회를 한국 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며 시작된 「한국산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가 올해 10월, 4년 만에 정식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협회와 일본 측 주관기관인 북해도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16년부터 '20년까지 상담회를 개최, 매년 100~200톤 규모의 건다시마 수출입 거래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임가공비 상승과 이에 따른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4년간('21~'24) 상담회를 중단해 왔다.

그간 협회는 임가공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거래 규격을 제안하는 등 상담회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2자리 수 규모의 물량으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유실되었던 일본 내 한국산 건다시마 유통망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거래물량과 가격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회는 한국산 건다시마의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산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 - 단체 간 준비회의



한국산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 - 가공현황 점검



한국산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 - 가공현황 점검 결과 협의



K-Seafood Fair

K-Seafood Fair 프랑스 행사는 6.25.(수)~29.(일)까지 5일간, 유럽 대표 미식 축제인 Lyon Street Food Festival과 연계하여 리옹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부스 전시, 시식 행사,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신선함과 우수성을 직접 알리며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다가오는 K-Seafood Fair 몽골 행사는 울란바토르 내 GS25편의점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산식품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KGW* 기간에 맞춰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어묵 메뉴와 함께, 참치·김을 활용한 메뉴도 선보여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KGW: K-Seafood Global Weeks

행사(안)	프랑스(리옹) K-Seafood Fair	몽골(울란바토르) K-Seafood Fair
기 간	'25. 6. 25.(수) ~ 29.(일)	'25. 11. 27.(목) ~ 30.(일) (예정)
장 소	프랑스 리옹	몽골 울란바토르
내 용	리옹 스트리트 푸드 페스티벌 연계 현지 유통 한국 수산 제품 홍보행사	울란바토르 내 GS25편의점 연계 현지 유통 한국 수산 제품 판촉행사



'25년 K-Seafood Fair 프랑스 홍보부스 전경



'25년 K-Seafood Fair 프랑스 홍보부스 내 포토존



'25년 K-Seafood Fair 프랑스 한국 수산물 시식



'25년 K-Seafood Fair 프랑스 쿠킹클래스 운영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협회는 2025년 정부 지원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신규 사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K-수산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K-Pop Demon Hunters의 열풍처럼, 관광객 입국이 활성화됨에 따라 협회는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4년 수산식품 브랜드대전 수상 제품 및 '24년 수출유망상품(수협중앙회)으로 선정된 제품 홍보 및 시식, SNS 홍보, 구디백(Goody-Bag) 증정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사업은 친한(親韓)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이기 때문에, 우수 한국 수산제품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

▶▶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홍보 진행 일정

회차	행사명	장소	축제일	홍보일수
1회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부산 벅스코	6.11.(수) ~ 6.13.(금)	3일
2회	보령 머드 축제	보령 대천	7.25.(금) ~ 8.10.(일)	12일
3회	부산 국제 영화제	부산 BIFF광장	9.17.(수) ~ 9.26.(금)	8일
4회	크루즈 관광객 홍보	부산 크루즈 터미널	11.6.(목) / 11.15.(토)	2일

▶▶ K-Seafood 인바운드 마케팅 홍보 결과(홍보부스 설문조사 참여자 기준)

회차	행사명	총 방문객수	외국인 수	설문 참여자
1회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42,500명	9,471명(22.3%)	771명
2회	보령 머드 축제	1,690,359명	135,228명(8.0%)	2,202명
3회	부산 국제 영화제	집계 중	-	1,394명

* 총 방문객 및 외국인 수는 행사 주관사 공식 집계

● 보령 머드 축제



룰렛 이벤트 참여



K-Seafood 구디백(Goody-Bag) 단체사진

» 외국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연번	설문 조사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보령 머드 축제
1	참여 국가	65개국	95개국
2	성별 비율	여성 79.0%	여성 51.3%
3	방문 한국 도시	서울·부산(78.6%)	서울·보령·부산(69.1%)
4	선호 수산 식품	김(26.2), 새우(14.1), 생선(11.7)	새우(21.6), 김(13.7), 생선(10.9)
5	K-Fish·Seafood 인지도	모른다(68.1%)	모른다(67.9%)
6	먹어본 한국수산물	김제품(63.9%), 참치(41.5%)	김제품(51.4%), 참치(45.0%)
7	선호 구입 한국수산물	김(71.4%) 압도적	김(51.1%) 과반 이상
8	홍보 부스 만족도	대만족 88.7%	대만족 86.5%

● 부산 국제 영화제



K-Seafood 설문조사



홍보 제품('24년 브랜드대전 수상 및 수출유망상품) 관람



K-Seafood 구디백 SNS 인증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700)

리스크 안전망 구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은 국내 영세 중소·중견 수산식품 수출입 업체의 리스크 관리(환율변동성 헷지,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래 계속되고 있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업계 지원수요가 폭증, 지난 5월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으나, 추가예산을 확보, 현재 온라인 사업신청 사이트(biz.k-seafoodtrade.kr)를 통해 2차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리스크 안전망 구축 필요성과 방법을 전파하고자 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오는 11.5.(수)~7.(금) BEXCO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수산물EXPO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리스크안전망 구축 교육」을 진행하니 업계의 많은 관심 바란다.

찾아가는 리스크 안전망 구축 교육영상



1. 선물환 거래방법
(선물환거래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학습)
2. 환변동보험 가입방법
(선물환거래와 환변동보험을 통한 관리방안 학습)
3. 환율예측 방법
(기술적 환율 예측방법의 일환인 이동평균법 소개)
4. 무역계약 위험관리방안
(신용조사를 통한 무역계약 위험관리방안 학습)

부산국제수산물EXPO 연계 찾아가는 리스크 안전망 구축 교육 일정

시간	1일차	2일차
09:00~10:00	교육장 운영·안내 담당자 교육 및 강사와 미팅	
10:00~11:00	교육 1	교육 3
11:00~12:00	컨설팅 1	컨설팅 3
12:00~14:00	점심시간	
14:00~15:00	교육 2	교육 4
15:00~16:00	컨설팅 2	컨설팅 4

리스크 안전망 구축 지원내역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지원율(%)	지원한도
미수금 (단체)	미수금을 대비한 수출대금 보장보험(단체가입)*	중소 기업	100	
환차손	환율변동을 대비한 수출대금의 원화가치 보장보험		95	
미수금 (개별)	미수금을 대비한 수출대금 보장보험(개별가입)	중소·중견 기업	90	업체당 60백만 원
선금금	무역사기를 대비한 수입대금 보장보험		"	
신용보증	수출품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용 보증		"	

* 미수금(단체) : 신용도 높은 기관이 보험대상 업체를 모아 가입하는 방식, 가입 절차와 비용이 개별가입에 비해 간단하고 저렴(업체당 200불)하나, 미수금 발생에 따른 보상한도가 50천만 불로 적음

지원종목 정보

» 미수금 안전망(단체)

상 품 명	내 용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를 보험계약자로,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 수출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 환차손안전망

상 품 명	내 용
일반형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받고,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옵션형(완전보장)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옵션형(부분보장)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일정 수준까지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 미수금안전망(개별)

상 품 명	내 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간편한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 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 수출신용보증

상 품 명	내 용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공통)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선적 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은 국내 활·신선 수산물 업체들의 적재항 인근 물류센터 임차를 지원하여 수출품의 경쟁력(신선도) 제고 및 이를 통한 주력시장 기반 안정화와 신규시장 개척도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2개사가 월 단위로 지원을 받고 있다.

협회는 지원업체의 성과제고 및 수출실적 증대를 독려하고자 지원업체에 대한 중간평가를 9월에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기준 미달 업체 지원 중단 및 이를 통해 적립된 잔여 예산은 인센티브(추가 지원금)의 형식으로 평가 우수업체에게 선순위로 배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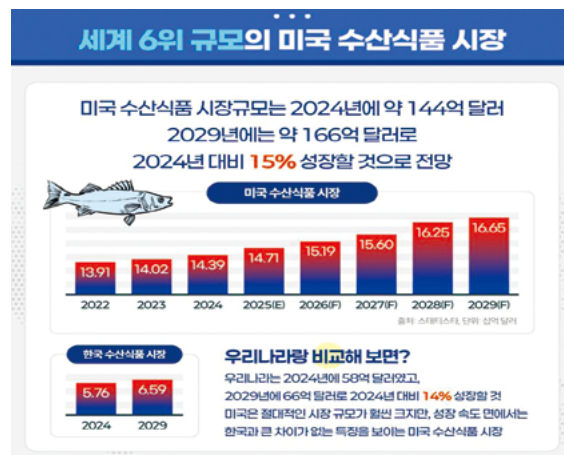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한국수산물무역협회는 올해 6월부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총 60건의 보고서가 순차적으로 제작되며, 기업은 수출 희망 국가와 품목에 대해 ①시장분석형, ②경쟁력분석형, ③소비자분석형, ④온라인플랫폼분석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또한 보고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확장 콘텐츠로 카드뉴스와 월간 이슈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카드뉴스는 국가·품목별 주요 정보를 그래프와 이미지로 시각화해 누구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월간 이슈 보고서는 보고서에서 도출된 심층 분석을 토대로 특정 국가의 수산물 시장과 소비 트렌드, 수입·유통업체 인터뷰, 주요 유통채널, 통관·검역, 비관세 장벽 등 핵심 이슈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자료는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co.kr)과 KATI(www.kati.net)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므로,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5년 카드뉴스 (미국 수산식품) - 1



'25년 카드뉴스 (미국 수산식품) - 2

담당·문의_ 협회 수출지원부(TEL. 02-6300-8701~5 / FAX. 02-6300-8700)

수산물 TRQ 수입권공매·배분

협회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025년도 FTA 5개 협정(중국, 베트남, 아세안, 뉴질랜드, 중미)의 「수산물 저울관세율할당(TRQ) 및 수입권공매 입찰」을 진행하여, 61,782톤이 낙찰(연간 물량 72,553톤 중 낙찰 누계 61,782톤)되었다.

품목별 현황

수입권공매 결과

(단위 : 톤)

FTA 명칭 (원산지)	연간 물량 (A)	현재 낙찰 물량 (B)	잔량 (A-B)
합계	72,553	61,782	10,771
한-아세안	7,300	7,000	300
한-베트남	15,000	15,000	-
한-중	47,380	39,782	7,598
한-뉴질랜드	1,473	-	1,473
한-중미	1,400	-	1,400

한-중 수입권배분 배정실적

(단위 : 톤)

품명	연간 물량 (A)	현재 배정 물량 (B)	잔량 (A-B)
합계	2,077	729	1,348
바지락(염장, 염수장)	290	290	-
바지락(냉동)	330	330	-
복어(활어)	140	109	31
아귀(신선, 냉장)	17	-	17
오징어(기타)	1,300	-	1,300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울관세율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울관세할당 물량, 시장접근 물량 등으로 불림

- (1)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TRQ'로 각종 안내 및 공고를 최우선 공지하오니 친구 추가 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2) 추가적인 입찰 및 배분 일정과 물량은 수입권관리시스템(<https://susantrq.kr>)에 수시로 게재됩니다.

담당·문의_ 협회 수입관리부(TEL. 02-6300-8804~5 / FAX. 02-6300-8700)

할당관세 적용 추천

새끼뱀장어(중간종묘)

우리 협회는 국내 뱀장어 양식 어가를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선착순으로 새끼뱀장어(중간종묘) 할당 관세적용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7.57톤을 추천하여 뱀장어 양식어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품목	품명	HS 번호	2025년 물량	기본세율	추천세율
뱀장어	새끼뱀장어 (한 마리당 0.3~50g, 양식용으로 한정)	0301-92-2000	50톤	5%	3%



할당관세란?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의 범위 내에서 가감

※ 할당관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kfta.net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문의_ 협회 수입관리부(TEL. 02-6300-8804~5 / FAX. 02-6300-8700)



튀르키예, EU TRACES 등록 기업의 수산물 수출 허용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EU TRACES EU TRACES¹⁾는
등록 또는 튀르키예 농림부 등록 필요



2025년 5월 30일, 튀르키예는 수산물(Su Ürünleri), 젤라틴, 콜라겐 등 특정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조건²⁾을 발표하였다.

튀르키예 농림부(Tarım ve Orman Bakanlığı)는 '사료 및 식품에 대한 공식 통제 규정(Gıda ve Yemin Resmi Kontrollerine Dair Yönetmelik)' 및 '동물성 식품의 특별 위생 규칙에 관한 규정(Hayvansal Gıdalar İçin Özel Hijyen Kuralları Yönetmeliği)'에 따라 수산물을 비롯한 특정 동물성 식품의 수입 허용 국가 및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1) EU TRACES는 2004년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플랫폼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의 위생증명서 제출의 전자화를 위한 온라인 위생증명 및 인증 플랫폼임

2) 튀르키예 농림부(<https://vskn.tarimorman.gov.tr/antalya/Duyuru/36/Belirli-Hayvansal-Gidalarin-ithalati-Icin-Isletme-Onay-Prosedurune-Gecis>)(2025.06.20. 검색)

TRACES 등록 기업³⁾ 또는 튀르키예 농림부에 등록된 국가 및 시설의 수산물 수출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對튀르키예 수출기업은 2026년 1월 1일 전까지 EU TRACES 등록 또는 튀르키예 농림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튀르키예 제3국 특정 동물성 식품 수출 허용 기업

수출 허용 기업 유형	세부 내용
EU TRACES에 등록된 기업	- 유럽연합의 TRACES 시스템에 등록된 국가 및 기업의 수출은 허용됨
튀르키예 농림부에 등록된 기업	- TRACES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튀르키예 농림부의 승인 국가·기업 목록에 등록되어야 수출이 허용됨: ① 수출국의 유관기관은 튀르키예 농림부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 국가 승인을 신청해야 함 ② 튀르키예 농림부는 수출국의 법률, 생산·검역 절차, 전염성 동물 질병 존재 여부 등의 정보 검토 및 현지 실사 후 해당 국가 등록을 승인함 ③ 농림부는 수출국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기업의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승인 기업 목록에 등록됨

자료 : 18060266 Belirli Hayvansal Gıdalar ve Hayvansal Yan Ürünlerin İthalatının Yapılacağı Ülke ve İşletmelerin Onay Prosedürü, Lexpera(<https://www.lexpera.com.tr/resmi-gazete-disindaki-kaynak/metin/belirli-hayvansal-gidalar-ve-hayvansal-yan-urunlerin-ithalatinin-yapilacagi-ulke-ve-isletmelerin>)(2025.06.20. 검색)

다만, 수출 허용 기업 유형 중 튀르키예 농림부를 통한 등록방식은 유관기관 간 위생약정에 의해 추진되어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對튀르키예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유럽 TRACES를 등록하여 수출 준비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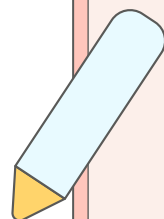
TRACES 등록 절차는 TRACES NT에 접속한 후 업체 정보를 등록해 권한 신청을 진행하면, 당국의 권한 승인을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 절차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⁴⁾.

튀르키예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수년간 유럽연합 규제와 국내 규제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유럽연합 규제에 맞춰 규정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튀르키예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규제 제·개정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수산식품은 유럽연합의 위생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원은송 연구원(E-mail. etz456@kmi.re.kr)

3) 2025년 6월 기준 약 400개 국내 기업 및 시설이 유럽연합 TRACE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U TRACES 교육자료(<https://www.nfqs.go.kr/hpmsg/board/actionBoardForm.do?menuId=M0001091>)





국가별 수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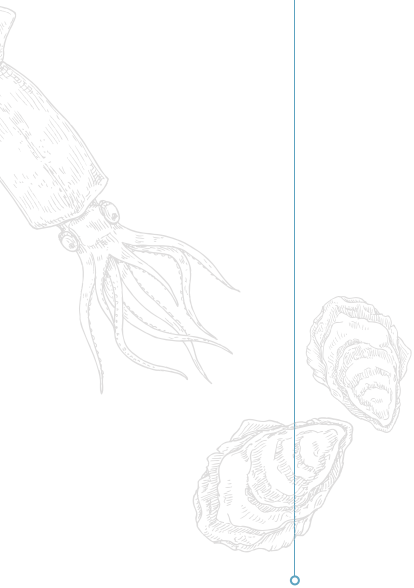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8월)	2025년(1~8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740,244	465,003	476,811	11,808	2.5
	금액	3,034,198	2,010,518	2,143,580	133,062	6.6
일본	물량	107,783	69,834	77,381	7,547	10.8
	금액	659,156	449,128	460,866	11,739	2.6
중국	물량	175,538	118,019	93,339	△24,680	△20.9
	금액	527,120	350,208	371,787	21,579	6.2
미국	물량	33,046	23,015	24,653	1,638	7.1
	금액	479,081	327,823	351,679	23,856	7.3
태국	물량	129,577	90,226	57,573	△32,654	△36.2
	금액	256,386	187,177	160,220	△26,957	△14.4
베트남	물량	69,780	49,149	45,555	△3,594	△7.3
	금액	217,569	143,265	154,713	11,448	8.0
러시아	물량	9,113	6,521	8,306	1,785	27.4
	금액	96,989	70,569	73,374	2,805	4.0
대만	물량	5,894	4,079	4,608	528	13.0
	금액	78,123	54,061	56,533	2,472	4.6
프랑스	물량	5,078	3,544	3,447	△97	△2.7
	금액	60,262	42,044	45,011	2,967	7.1
캐나다	물량	3,207	2,081	2,123	42	2.0
	금액	54,893	34,560	37,385	2,825	8.2
인도네시아	물량	17,203	11,610	8,598	△3,012	△25.9
	금액	60,394	39,857	32,385	△7,471	△18.7

품목별 수출 통계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8월)	2025년(1~8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740,244	465,003	476,811	11,808	2.5
	금액	3,034,198	2,010,518	2,143,580	133,062	6.6
김	물량	33,885	24,639	26,613	1,975	8.0
	금액	997,027	708,106	794,999	86,894	12.3
참치	물량	232,842	160,382	96,536	△63,846	△39.8
	금액	589,329	393,618	327,701	△65,918	△16.7
고등어	물량	78,768	28,690	74,377	45,687	159.2
	금액	87,422	32,809	88,448	55,639	169.6
오징어	물량	16,752	5,228	18,201	12,973	248.1
	금액	76,258	31,176	72,045	40,869	131.1
굴	물량	9,615	7,917	7,859	△58	△0.7
	금액	76,555	62,199	58,797	△3,402	△5.5
이빨고기	물량	2,418	1,847	1,878	31	1.7
	금액	71,031	53,648	57,534	3,886	7.2
게	물량	1,955	930	1,258	329	35.4
	금액	74,746	35,924	45,638	9,714	27.0
삼치	물량	29,692	11,748	13,555	1,807	15.4
	금액	79,442	40,192	39,807	△385	△1.0
넙치	물량	4,970	3,415	5,731	2,316	67.8
	금액	53,142	32,540	38,260	5,720	17.6
전복	물량	2,954	1,798	2,024	226	12.6
	금액	55,474	34,143	32,000	△2,143	△6.3



통계자료
수입국가별
수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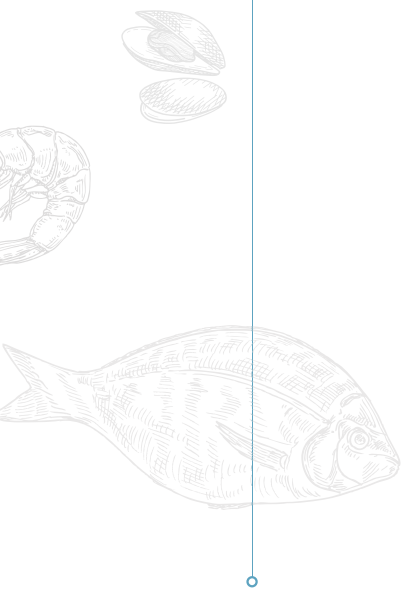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8월)	2025년(1~8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6,262,348	4,054,091	4,382,233	328,142	8.1
	금액	5,984,628	3,839,391	4,118,386	278,995	7.3
중국	물량	867,092	492,888	551,512	58,624	11.9
	금액	1,450,754	896,421	956,072	59,651	6.7
러시아	물량	285,111	181,850	179,491	△2,358	△1.3
	금액	906,428	560,335	586,749	26,414	4.7
베트남	물량	176,761	111,348	112,458	1,110	1.0
	금액	820,087	515,544	526,465	10,921	2.1
노르웨이	물량	73,974	47,594	56,618	9,024	19.0
	금액	555,523	363,135	380,627	17,491	4.8
페루	물량	39,337	31,291	33,211	1,921	6.1
	금액	169,936	128,105	186,658	58,554	45.7
칠레	물량	57,992	41,020	46,961	5,941	14.5
	금액	171,468	123,518	167,215	43,698	35.4
일본	물량	38,788	25,040	40,064	15,024	60.0
	금액	194,419	106,764	133,382	26,619	24.9
미국	물량	59,216	40,069	37,075	△2,994	△7.5
	금액	210,494	136,434	129,318	△7,115	△5.2
인도	물량	2,819,268	1,905,859	2,062,467	156,609	8.2
	금액	169,349	114,621	106,743	△7,878	△6.9
태국	물량	20,997	15,021	12,570	△2,451	△16.3
	금액	144,141	101,348	93,227	△8,121	△8.0

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24년	2024년(1~8월)	2025년(1~8월)	증감	증감률
전체	물량	6,262,348	4,054,091	4,382,233	328,142	8.1
	금액	5,984,628	3,839,391	4,118,386	278,995	7.3
오징어	물량	139,825	92,631	106,509	13,878	15.0
	금액	481,662	304,642	458,063	153,420	50.4
연어	물량	45,885	31,671	29,233	△2,437	△7.7
	금액	506,900	343,808	323,451	△20,357	△5.9
새우살	물량	44,023	27,476	31,416	3,940	14.3
	금액	341,080	211,778	258,527	46,749	22.1
새우	물량	60,954	39,920	38,892	△1,027	△2.6
	금액	358,123	238,503	242,045	3,542	1.5
명태	물량	199,722	124,107	113,689	△10,418	△8.4
	금액	351,750	216,872	213,819	△3,053	△1.4
참치	물량	23,248	16,761	19,026	2,265	13.5
	금액	192,383	122,442	178,683	56,241	45.9
소금	물량	4,855,407	3,132,863	3,441,183	308,321	9.8
	금액	253,399	164,181	165,061	880	0.5
낙지	물량	28,797	17,056	16,724	△332	△1.9
	금액	251,906	152,156	150,384	△1,772	△1.2
고등어	물량	45,004	29,931	42,606	12,675	42.3
	금액	123,087	78,128	129,457	51,329	65.7
주꾸미	물량	30,480	19,720	19,907	187	0.9
	금액	189,515	123,309	126,325	3,015	2.4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

-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과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9월 4일(목)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 등 케이(K)-씨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와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를 참고.



해양수산부,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국내 친환경 수산물 홍보 추진

-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9월 6일(토)~7일(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 * (유기수산물)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양식방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수산물
- ** (무항생제 수산물) 항생제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출하 전 법적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을 준수하여 생산된 안전한 수산물
-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배경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미술랭 2·3스타 다국적 셰프들이 함께 국내 친환경 수산물을 주제로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K-씨푸드가 고급 미식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알렸다.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를 참고.



한국-에콰도르, 해양수산분야 협력 논의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9월 1일(월) 세종청사에서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그란하(Luis Alberto Jaramillo Granja)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면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ODA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에콰도르가 요청한 수산·양식 및 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새우 질병진단 기술 협력을 위한 시약 제공 및 진단 역량 강화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 차관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OC)의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에콰도르의 지지를 요청과 더불어 해당 면담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를 참고.



네덜란드, '녹색 금' 해조류 키운다! 세계 최초 해상풍력 양식장 운영

- 최근 3년 동안 네덜란드의 전 세계 해조류(HS Code 1212.21) 수입은 2022년 1,222만 4,0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2023년 886만4,000달러로 감소했다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021만2,000달러를 기록했다.
- 한편 네덜란드의 해조류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53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산 해조류 수입은 2023년에 112만3,000달러로 급증하며 전 세계 점유율을 12.7%까지 확대했다.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8만6,000달러를 기록하면서 3위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비록 점유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절대 수입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해조류의 네덜란드 내 입지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베트남 식품등록 및 통관 지연

- 현재 베트남 식품 안전법 2차 개정안이 공시되었으나, 법령 시행 일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국 수출업체들의 대베트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관의 수입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도 지연되고 있어 수입업체의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베트남 식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 (위생 증명서 및 수출 증명서)는 기존 베트남 보건부(VFA)에서 발급하였으나, 정부령 148/2025/NĐ-CP에 따라 2025.07.01.부로 발급 권한이 중앙부처(보건부)에서 지방부처(성/시)로 분권이 진행되었다.
- 시행 초기 단계인 현재 일부 지방에서 서류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일부 기업의 수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베트남 보건부는 2025.08.14. 공문 제5386/BYT-ATTP호를 통해 각 성/시 인민위원회, 보건국, 호치민시 식품안전국에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수출용 식품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인도네시아, 수산물 품질·안전 규제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규격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적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수산물 관련 SNI는 총 207개가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152건은 식용, 55건은 비식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SNI를 통해 수산물의 영양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호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제품 시험·품질성 검사센터를 SNI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적합성 인증서 발급을 맡길 계획이다.
- 또한 인도네시아는 수산물 가공 원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7월 6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공 원료 기준에 관한 2025년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66호’를 발표하며, 모든 가공 원료 전반에 대해 SNI 표준 준수를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co.kr>)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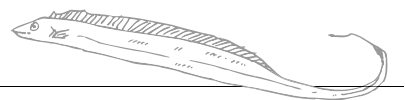


제철 수산물이 좋다!

특정 시기나 계절에만 얻을 수 있는 채소, 과일, 해산물 등을 제철 음식이라고 한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이거나 한창 살이 올라서 맛이 좋은 시기가 제철이다. 나물은 부드러운 새순이 나는 시기가 제철이고 생선은 알을 낳을 시기가 되어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가 제철이다. 반대로 조개는 알을 낳는 시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해야 한다. 오늘은 가을 바다의 제철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어 보는 건 어떨까?

1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갈치



갈치는 생김새가 기다란 칼 모양이어서 도어 또는 칼치라고도 부른다. 갈치는 비늘이 없고 몸 전체가 은빛으로 반짝인다. 이는 구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 물질은 모조진주나 매니큐어 펄의 원료로도 사용한다. 갈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육식성 어류이다. 배가 고프면 자기 꼬리를 뜯어먹거나 같은 종의 꼬리를 잘라 먹는 습성을 가졌다. 이 특징 때문에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친한 사이에 서로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는 속담도 생겼다. 갈치를 고를 때에는 몸통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은빛으로 빛나며, 눈동자가 또렷하고 동공이 선명한 것을 고르면 된다.



재료

30분간 불린 쌀, 가시를 제거한 갈치, 버터 1조각, 코인 육수, 쪽파, 들기름 1T



갈치술밥 조리방법

- 1 숟에 버터 1조각을 넣고 불린 쌀을 넣어 볶는다.
- 2 ①의 숟에 쌀과 동량의 물, 코인 육수를 넣고 중불에서 끓인다.
- 3 물이 끓어 오르면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15분간 끓인다.
- 4 순살 갈치는 기름을 충분히 두른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 5 ③에 잘게 썬 쪽파와 ④의 갈치, 들기름을 뿌리고 10분간 뜸 들인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 가을 수산물

새우



가을 새우는 9월부터 12월까지 제철로, 은은한 단맛과 탱글한 식감이 특징이다. 번식을 앞둔 9~11월에 먹이 활동이 왕성해져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분이 풍부해진다. 겨울을 준비하며 단백질과 지방을 축적해 단맛과 감칠맛이 최고조에 달하며, 낮아진 바닷물 수온은 새우 육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이 시기에는 크기, 식감, 풍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가장 맛있는 새우를 즐길 수 있다. 새우는 저칼로리, 고단백, 불포화지방,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며, 특히 칼슘과 키토산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가을철에 많은 사랑을 받는 해산물이다.



재료

애호박, 통새우 8마리, 미림 1/2작은술, 소금 1꼬집,
애호박 속 7개, 양파 1/2개, 청양고추 1개, 다진 마늘 1/2큰술,
감자전분 2큰술, 국간장 1/2큰술, 소금 1꼬집, 튀김가루 5큰술,
달걀 3개, 빵가루 1컵, 식용유 적당량

2



애호박새우전 조리방법

- ① 애호박은 1.1~1.5cm 두께로 썰어 가운데를 파내 소금을 약간 뿌려 절인다.
- ② 새우는 미림과 소금을 뿌려 밑간한 후 물로 헹구어 준비한다.
- ③ 애호박 파낸 속, 양파, 청양고추, 다진 마늘, 감자전분, 국간장, 소금을 섞어 속을 만든다.
- ④ 애호박 홈에 속을 채우고 통새우를 올린 후 튀김가루와 달걀물을 입히고 빵가루를 묻혀 팬에 노릇하게 부친다.
- ⑤ 중불에서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구우면 바삭하고 촉촉한 전을 즐길 수 있다.



군소

신경계 비밀의 열쇠 - 바다 달팽이

군소는 연체동물문(門) 복족강(綱)에 속하는 동물로 몸 빛깔은 흑갈색 바탕에 주로 회백색의 얼룩무늬가 많으나 서식 환경에 따라 개체변이가 심한 종이다. 녹조류, 갈조류 등의 해조류를 좋아하며, 머리에 있는 큼직한 한 쌍의 앞 더듬이가 토끼의 귀처럼 생기고 순해서 서양에서 '바다의 토끼(Sea hare)'라 부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군소가 육지의 껍질 없는 민달팽이를 닮았다 하여 '바다의 달팽이'라고도 부른다.

군소는 조개류와 같은 연체동물이지만 몸을 보호하는 패각이 없다. 대신 자선(紫腺, purple gland)이라는 기관에서



군청색 색소를 뱉어내어 포식자의 접근을 막아낸다. 군소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웅동체로 암수 한 몸이지만 물속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팔도 없는 매끈한 몸이 줄줄이 길게 달라붙어 있는 것도 기묘하지만 일단 한번 붙으면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른다. 3월에서 7월 사이에 걸쳐 해조류 사이에 오렌지색의 끈을 뭉친 것 같은 알을 낳는데, 생물학자들은 군소 한 마리가 한 달에 낳는 알의 수가 약 1억 개에 이른다고 한다.

군소는 약 2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간단한 신경 회로망을 가지고 있다. 군소의 거대 신경세포를 이용하면 인위적인 시냅스 배양이 가능하고 미세 전극을 세포 안에 침투시키는 전기 생리학적 분석이 용이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에릭 캔델(Eric R. Kendel) 교수는 군소(Aplysia)를 재료로 학습과 기억의 세포 메카니즘을 밝혀 지난 2000년도에 노벨상을 수상 한 바 있다.

군소는 그 독특한 향을 즐기는 남해안의 바닷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군소의 배를 갈라 내장과 색소를 완전히 뺀 후 삶으면 부피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쫄깃쫄깃해진다. 쫄깃하고 씹새래한 맛에 초장 맛이 어우러지면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만 손이 간다. 문어보다 좀 더 나은 맛을 낸다는 것이 즐기는 사람들의 얘기다. 군소는 제사상에서도 대접을 받는다. 경상도 해안지방에서는 군소 꼬치를 훈례나 회갑 잔치상에 올렸고, 명절이나 제사에 군소 산적이 빠지면 헛제사를 지냈다 할 정도이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난 여름 제주도

(사)한국수산물유통협회 주임 윤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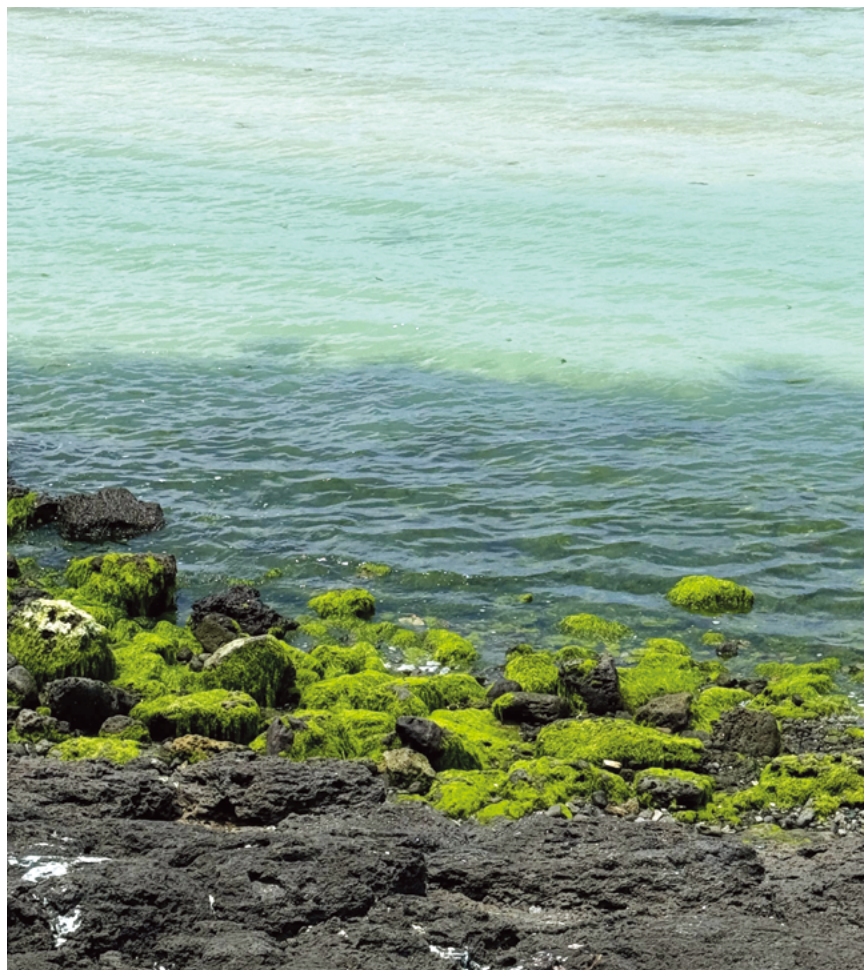


하늘과 바다가 푸르른 빛을 띠는 여름날의 제주도, 내 생에 한번을 가보지를 못했다. 제주라는 섬에 갈 때마다 어째서인지 겨울이었고, 드디어 이번에 여름 제주도를 느낄 수 있다니 설렘만 가득했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특가항공으로 급하게 비행기만 예약했고, 즉흥 여행으로 한번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떠났다.

첫째 날

공항에 도착해서 게이트를 밖으로 나간 순간 습한 공기와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침도 굶은 터라 배고팠던 우리는 바로 제주공항 근처의 '금복식당'이라는 곳에 고기 국수를 먹으러 갔다. 고기와 국수라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조합이었기에 얼마나 맛있을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기대돼서 흘러나오는

직접 찍은 제주도 바다 풍경





금복식당



일품순두부 연동점



왕서방_중국집



음악에 자꾸 리듬을 탔다. 처음 맛본 고기 국수는 진득하고 깊은 육수의 맛과 탱글탱글하게 삶아진 면이 어우러져 고소함과 담백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맛이였다. 배부름과 만족감을 느끼고 여름 제주도 바다를 구경하러 갔다. 물놀이를 할 준비를 하나도 해오지 않았는데, 30도가 넘는 날씨에 뽕뽕 내리쬐는 태양과 바다를 머금은 듯한 습도와 바람 때문에 당장이라도 물에 뛰어들고 싶었다. 모래사장의 열기에 못 이겨 바다에 발을 담그니 어찌나 시원하던지 다음번에 올 땐 꼭 물놀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차를 타고 해안가를 드라이브한 뒤,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제주도에 사는 친한 언니 집에 짐을 풀러 갔다. 제주나 부산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들 비슷하다는 것을 느낀 뒤 저녁으로 흑돼지를 먹으러 갔다. 돌담 흑돼지라는 연동에 있는 고깃집으로 갔는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자리가 만석이어서 한참을 기다린 뒤 먹을 수 있었다. 잘 구워진 흑돼지에 명이나물을 싸서 젓갈에 찍어 먹으니 고기의 육즙이 입안 가득 채워져 젓가락을 내려놓지를 못했다. 이곳은 공깃밥을 시키면 돌솥밥이 나오는데 뜨끈한 송충으로 기름진 속을 달래니 금상첨화였다. 배부르게 먹고 집에 도착하니 잠이 솔솔 오는 것이 이런 게 힐링이구나 싶은 하루였다.

둘째 날

둘째 날은 관광객으로 유명한 맛집보다는 현지인에게 유명한 맛집을 가는 식도락 여행을 제대로 즐겼다.

아침으로는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제주 현지인들만 가는 곳이라 관광객들은 거의 없어 제주 특유의 말투가 잘 들리는 곳이었다. 팔팔 끓는 순두부에 날달걀 하나를 톡 터뜨려서 휘휘 저어서 한 입 먹으니 이때까지 먹어본 순두부는 가짜였나보다 싶을 정도였다. 나는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 편이라 국물이나 찌개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툇배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밥에 야무지게 말아 먹어버렸다. 다시 한번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제주에서 유명한 굴 티셔츠를 사러 옷가게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재고 소진으로 10월까지 품절되어 팔지 않는단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근처 소품샵을 구경하러 갔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사고 싶은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제주에서만 팔 것 같은 귀여운 키링을 하나 사는 것에 만족했다. 점심으로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무슨 제주도까지 와서 중국 음식을 먹나 라고 생각했는데, 해물 짬뽕을 한 입 먹으니 먹으러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제주산 해물이라 그런지 식감도 탱글탱글하고 괜히 바다 맛이 좀 더 잘 느껴지는 짬뽕이었다. 이곳은 제주에서도 변화가가 아닌 곳에 위치해있어 주변 근로자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식당같았다. 관광객인 우리가 신기한지 자꾸 스몰토크를 걸어오셨다. 맛집 추천도 받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먹으니 너무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밥을 먹었으면 응당 후식을 먹어줘야 한국인 아니겠나.



기념품샵

일반 가정집을 카페로 꾸며놓은 고토커피를 찾았다. 이곳은 원두를 고르면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산미가 진한 원두보다는 고소한 맛이 나는 것으로 골랐고, 한 분의 바리스타가 모든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매번 천오백 원짜리 커피만 마시다가, 특유의 풍미가 가득한 커피를 마시니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고 느꼈다. 자연광을 받으며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역시 지나고 보니 이런 맛과 감정을 남길 수 있는 건 사진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음식은 고등어회였다. 아직 고등어회를 먹어본 적은 없었지만, 회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 나로서는 어떤 맛일지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음식이었다. 아마 조금은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린 맛은커녕 기름이 촉촉하게 배어 있어서



고토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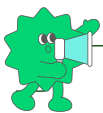
고등어회

오히려 고소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바다향이 채워지는 것이 술안주로서 최고의 음식이었다. 고등어회는 우리 모두 오는 내내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일 맛있었다.

떠나는 날

마지막 날은 떠나기 전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동문시장에 방문했다. 간단하게 배를 채운 뒤 동문시장을 둘러 봤는데, 30도의 열기에 관광객들로 붐비는 시장을 걷기가 쉽진 않았다. 더위에 못 이겨 빠르게 제주 여행 갔다고 하면 누구나 사 오는 제주 초콜릿을 비롯한 꿀과 오메기떡을 빠르게 구매한 뒤, 비행기 시간이 되어 공항으로 떠났다.

2박 3일 짧다면 짧은 여행이었지만, 처음 가본 여름 제주도는 너무나 습하고 더웠지만 그것 나름대로 만끽하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이번을 계기로 계절별로 제주도를 한 번 방문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 내

(사)한국수산무역협회는 소식지 내에 임직원 및 회원사 여러분이 참여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혹은 시·수필(독후감, 여행기, 영화감상문 등 포함) 등 장르에 구애되지 않고 기고문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께는 채택될 경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출처 : 대리 염승민 ☎ 02-6300-8803 / ✉ kfta@kfta.net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임직원 전화번호

TEL. 02)6300-8901
FAX. 02)6300-8900
E-mail. kfta@kfta.net

경영 지원부

전무이사 김학조 02-6300-8601
상무 박종근 02-6300-8602
과장 박애경 02-6300-8603
회원관리, 수산물발기금 등

수출 지원부

본부장 황강석 02-6300-8701
차장 박상형 02-6300-8702
차장 최승호 02-6300-8703
대리 박소민 02-6300-8705
주임 장희재 02-6300-8704

대일 김·건다시아 수출 촉진
부산국제수산물EXPO(BISFE) 공동주관
리스크 안전망 구축 지원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수출통합마케팅 지원
수산물식품 수출유공 표창 및 브랜드대전 주관

수입 관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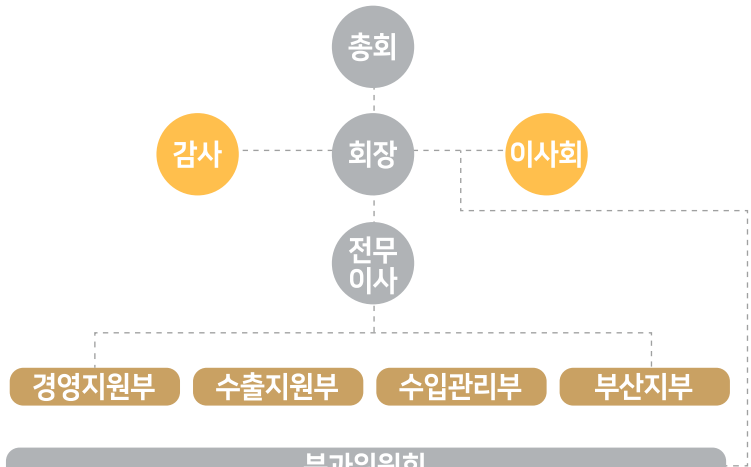
부장 김범성 02-6300-8801
차장 황국원 02-6300-8802
대리 염승민 02-6300-8803
주임 임세운 02-6300-8804
주임 김채원 02-6300-8805

수산물 TRQ 수입권공매·배분
새끼 뱀장어 할당관세 적용 추천
수입수산물 가격·유통구조 조사

부산 지부

지부장 남상정
과장 우승윤 051-231-8806(T)
주임 윤지영 051-231-8805(F)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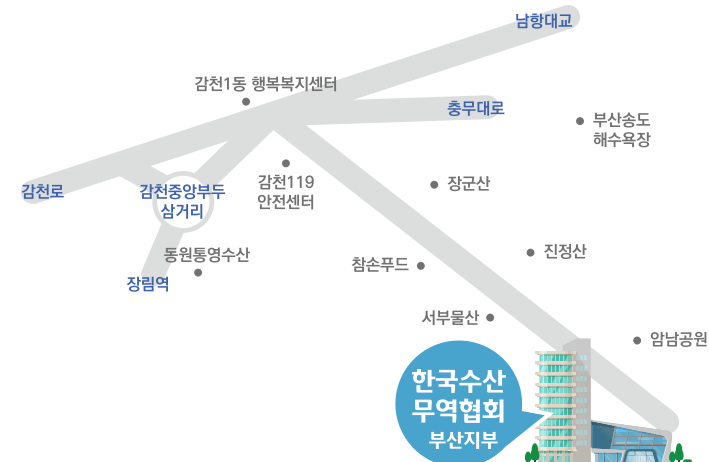


넙치수출분과	다시마수출분과	유통정보분과
전복수출분과	김수출분과	수산물수출협력분과
해삼수출분과	수산물수입분과	
해조류수출분과	수산물수출입운송분과	

본사 오시는 길 _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aT) 1103호



부산지부 오시는 길 _ 부산 서구 원양로 1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B동 7층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2025

Nov.5. **Wed** - Nov.7. **Fri** BEXCO
Busan, Korea

Host  BUSAN METROPOLITAN CITY

Organizers  KFTA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

 bexco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upporte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FISHERIES ASSOCIATION

 Kofa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KFEA KOREA FISHERIES EQUIPMENT ASSOCIATION